

정제촉매, 유황함량 규제가 촉진제

미국, 2005-06년 가솔린 25-30ppm으로 하향조정 ... 디젤은 30ppm

Spring House는 세계 정제촉매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하나, 일부 분야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이나 중동은 플랜트 신증설 계획에 따라 더욱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촉매 시장에서는 가솔린과 디젤(Diesel) 연료의 유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Albermarle는 2005-06년 미국에서 가솔린의 유황 함유량이 300ppm에서 25-30ppm으로, 디젤은 500ppm에서 30ppm으로 하향 조정돼 2015년까지 HPC 수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Goldman Sachs는 환경규제 강화로 HPC 촉매의 중단기 수요신장은 가능하나 주 소비자인 정제기업들의 합병으로 수요기업들의 협상력이 증대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과거 수십년간 촉매기업들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활발했는데, FCC는 ExxonMobil과 W.R. Grace의 Davison Catalysts, HPC는 ExxonMobil과 Akzo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로 상호의존관계는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avison Catalysts는 현재 정유산업의 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환경규제 강화 외에도 가솔린의 수요 강세가 정제촉매 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970년대 중반이후 정유산업의 생산능력이 정체상태여서 정제기업들은 정제촉매 생산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최근 FCC가 Propylene 등의 화학원료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line도 미국의 정유산업은 수년간 공급과잉을 보였으나 최근 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생산능력 신증설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는 1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2개의 정유 플랜트를 신설하기 위한 환경 및 행정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유 플랜트는 1980년 약 300개에서 현재 149개로 감소했다.

<화학저널 2004/09/17>